

TV 15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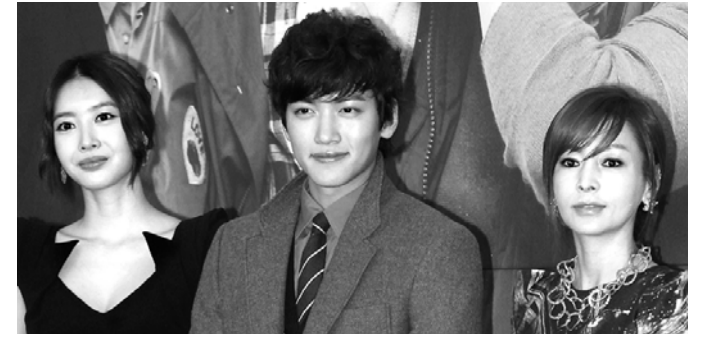
채널A	KBS1	KBS2	MBC	KBC/SBS
00 굿모닝!채널A입니다	00 KBS 뉴스광장	00 굿모닝 대한민국 1~2부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출발! 모닝와이드 1~2부
07	50 인간극장		1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MBC 아침드라마 <위험한 여자>	05 KBC 뉴스지금 30 출발! 모닝와이드 3부
08	00 생방송 김성주의 모닝카페	25 아침미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09	00 해피엔드 101가지 부부이야기(재) 30 주말특별기획드라마 <천상의 화원 공매명>(재)	30 KBS 뉴스	00 TV 소설 <복희누나> 40 여유만만	30 아침연속극 <태양의 신부>
10	40 무비홀릭(재)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50 TV 동화 행복한세상	50 지구촌 뉴스	10 좋은아침
11	40 너는 내 운명(재)	00 즐거운 책 읽기 55 비르말 고운말	10 스포츠 타임 20 TV 특감(재)	30 SBS 뉴스
12	10 채널A 뉴스와 경제 30 보이는 특강	00 KBS 뉴스12	00 스타 인생극장(재)	00 SBS 생활경제 40 KBS 생활뉴스
1	30 여행이 좋다(재)	00 한국재발견 <충남 태안>(재)		00 SBS 12 뉴스 30 테마스페셜(재)
2	20 아트스쿨(재)	00 KBS 뉴스 10 KBS 연속기획 시청자와 함께 생명을 나눔시다	10 의뢰인 K(재)	00 SBS뉴스 10 건강클리닉(재)
3	30 해피엔드(재) 101가지 부부이야기	00 KBS 뉴스타임 05 추로링 동물탐험(재) 35 달의 신나는 우주여행(재)	00 KBS 뉴스타임 05 추로링 동물탐험(재) 35 달의 신나는 우주여행(재)	10 세계의 속제 스페셜
4	30 김수미의 소꿉(재)	00 KBS 오늘의 경제 10 KBS 연속기획 시청자와 함께 생명을 나눔시다	00 TV 유치원 30 오후의 초록가방(재)	00 스킨2고 30 꾸러기 탐구생활
5	40 채널A 뉴스네트워크	00 KBS 뉴스5 20 동물의 세계 40 남도지오그래피	00 사랑의 가족	00 SBS 뉴스퍼레이드 15 KBC 저녁뉴스 30 전국 TOP 10 가요쇼(재)
6	00 다섯남자의 맛있는 파티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사는 세상	00 KBS 뉴스타임 10 생생 정보통 1~2부	30 생방송! KBC 투데이
7	00 생방송 연예인사이드	00 KBS 뉴스 7 30 한국인의 밥상	45 스타 인생극장 <원더걸스>	10 시사타치 떠따따 20 일일드라마 <내달 꽃님이>
8	00 해피엔드 101가지 부부이야기 30 채널A 뉴스 830	25 일일연속극 <당신뿐이야>	20 세계는 지금 55 특집 신동호	00 SBS 8 뉴스 25 KBC 8 뉴스 45 SBS 스포츠 뉴스 50 순간포착 세상에 이렇었어
9	15 채널A 스포츠 투나잇 20 보도특집다큐멘터리 <끝나지 않은 노래>	00 KBS 뉴스 9	55 수목드라마 <영광의 제인>	55 SBS 대기획 <우리집은 나무>
10	20 무비홀릭	00 역사스페셜 <서동성화 주인공은 누구인가> 50 아름다운 사람들		
11	30 너는 내 운명	00 KBS 뉴스라인 40 현정로 동행	05 해피투게더	15 스타부부쇼 자기야
12	00 채널A 한밤뉴스 10 컬러 오브 우먼(재)	35 콘서트 필2	25 스포츠 하이라이트 35 TV50년 앙코르 상상플러스	25 MBC 뉴스 24 35 MBC 프라임
				25 나이트라인 45 한국의 숲(재)

채널A 수목극 '총각네 야채가게'

야채가게로 성공한 건강한 다섯 청년 이야기

야채가게를 운영하는 건강한 다섯 청년의 이야기가 TV드라마로 펼쳐진다. 종합편성채널 채널A는 개국 특집 수목극 '총각네 야채가게' (극본 윤성희, 연출 이준형)를 21일 오후 9시20분 첫방송한다. '웃어라 동해야', '무사 백동수'로 스타덤에 오른 지창욱과 '보스를 지켜라'로 인기를 끈 왕지혜가 남녀 주인공을 맡았다. 또 황신혜가 '젊은엄마' 역으로 출연한다. 지창욱은 역경을 딛고 야채가게를 열어 성공하는 한태양 역할을 맡았다. 14일 열린 제작발표회에서 그는 "사실 '웃어라 동해야'의 동해와 닮은 점이 있어 초반에는 불안했던 것도 사실"이라며 "그러나 동해가 정직하고 바른 인물이라면 태양은 낙담 좋고 꿈이 있는 친구"라고 설명했다. 그는 태양에 대해 "그저 밝고 건실한 청년이라고 말하면 서운할 정도로 치열하고 약삭같이 산 인물"이라고 소개했다. 왕지혜는 '엄친딸' 중에서도 최고의 엄친딸 목가은 역을 맡았다. 부모 뜻대로 열심히 공부해서 영국 옥스퍼드로 유학을 가서 조기졸업을 하고 돌아온 재원이다. 그런데 목가은의 어릴 적 이름은 '진진심'이었다. 고아로 자라 항상 엄마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던 중 최강선(황신혜)의 딸 목가은이 불의의 사

고로 죽자 그의 딸로 살아가게 된다. 왕지혜는 사연 많은 인물을 연기하는 것에 대해 "어느 때보다 나를 힘들게 몰아붙여서 촬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작진은 '총각네 야채가게'는 청년실업으로 신음하는 시대



<왼쪽부터 왕지혜·지창욱·황신혜>

에 정직하게 땀 흘리며 미래를 개척해나가는 건강한 청년들을 응원하는 이야기라고 밝혔다. 제작진은 광범한 일상 속에서 삶의 의미를 새롭게 찾으려고 도전해 성공하는 개성 넘치는 싱그러운 인생 드라마를 펼쳐보이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교도소에서 울리는 '기적의 하모니'

성탄 특집 'SBS스페셜' 18·25일 방영

SBS TV 'SBS스페셜'은 18일과 25일 밤 11시 성탄특집 2부작 '기적의 하모니'를 방송한다. 프로그램은 국내 유일의 소년 수형자 시설인 김천 소년교도소 수형자 18명이 합창단 '드림스케치'를 결성하고 노래를 통해 새롭게 거듭나는 과정을 담았다. 7개월간 밀착 취재를 통해 세상과 어울려 살아가는 법을 몰랐고, 악보는커녕 계리음조차 모르던 아이들이 가수 이승철(사진)의 안내로 음악의 세계로 들어가 희망을 찾는 이야기를 전한다. 이승철은 서울과 김천을 10

여 차례 오가며 음악적 멘토가 되어줬고 때로는 선배, 형으로 그들의 마음을 보듬었다. 그는 아이들에게 후회와 다짐, 고백이 담긴 편지를 써오게 했고 아이들이 가슴으로 써온 편지를 바탕으로 가사를 만들고 곡을 붙였다. 그렇게 탄생한 곡이 '그대에

계만 드립니다'. 자신들의 이야기가 담긴 노래를 선물받은 아이들은 드디어 마음으로 노래하기 시작했고 노래를 통해 자신을 위로하고 치유해나갔다. /연합뉴스



이승철은 서울과 김천을 10여 차례 오가며 음악적 멘토가 되어줬고 때로는 선배, 형으로 그들의 마음을 보듬었다.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2월 15일(음 11월 21일 甲辰)

- 36년생 연애편에 대해 책임 져야 한다. 48년생 운전 시작자대에서 곡에 운전 하는 오토바이를 주의하라. 60년생 사랑으로 감쌀 줄 아는 지혜가 덕이나라. 72년생 처음에 고통스러우나 나중에는 편안하다. 84년생 육심 부리면 일을 그르치게 되리라. 행운의 숫자 : 42, 55
- 37년생 순탄하게 진행되지는 않되리라. 49년생 이해 관계를 떠나 순수한 마음으로 대하라. 61년생 중개인이 나타나 흥정하거나 교섭할 수 있다. 73년생 불평해소를 생산적으로 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 85년생 자신을 낮출수록 대우받을 것이다. 행운의 숫자 : 75, 19
- 38년생 악순환의 연결 고리를 과감하게 끊어 버려야 한다. 50년생 처벌하지 않으면 거품이 많을 수다. 62년생 법규를 지켜야 신분이 안전하다. 74년생 다시 한 번 점검하고 발생 가능한 변수를 예상해 보라. 행운의 숫자 : 18, 83
- 39년생 안일함에 빠져서는 생의 의미도 잃을 수 있다. 51년생 더 넓게 본다면 이해할 수 있으리라. 63년생 반감을 완화시켜서 자기편으로 유도하라. 75년생 독산자는 새로운 인연을 만날 기회가 생긴다. 행운의 숫자 : 63, 04
- 40년생 본능적인 언행은 경솔하다는 평을 낳는다. 52년생 말다툼이 시비로 비화될 수도 있다. 64년생 인지는 언젠간 바뀔 수 있으니 마음을 비우고 겸손 하라. 76년생 그리워하던 사람을 우연히 만나게 된다. 행운의 숫자 : 82, 43
- 41년생 처음부터 끝까지 즐기게 진행해야 한다. 53년생 겉으로는 멀쩡하지만 내면의 아픔이 상당하다. 65년생 깔끔한 용모로써 참신한 이미지를 선보여야 한다. 77년생 참기 힘든 고역이 가중될 형상이다. 행운의 숫자 : 26, 92

- 42년생 불안정한 부분을 보완하라. 54년생 길사가 계속 되더라도 오만방자하면 침해한다. 66년생 상대의 과실을 너그러우 아랑으로 포용할 수 있어야겠다. 78년생 내 주 고 오명을 뒤집어 쓸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 83, 12
- 43년생 과립지향의 돌발 행위를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 55년생 실력을 키우지 않으면 비분강개할 일이 생길 수도 있다. 67년생 결 결 방도가 보이질 않겠다. 79년생 대고는 없으나 좋은 일이 있는 것도 아니다. 행운의 숫자 : 91, 76
- 44년생 계속 진력해야 성과가 보일리라. 56년생 마음의 문을 닫으면 만사가 흥해진다. 68년생 활약을 저질렀거든 진솔하게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라. 80년생 작은 일이 화근이 되어 큰 재난을 몰고 올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 11, 35
- 45년생 뜻한 바를 기필코 이루리라. 57년생 매물은 꼭 문서와 일치하는 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69년생 근본적인 원동력을 상실할 수도 있다. 81년생 미묘한 관계를 잘 파악하면 큰 이익이 대용해 야 한다. 행운의 숫자 : 08, 92
- 46년생 노력을 기울인다면 늦게나마 성취하게 되리라. 58년생 역할을 정하고 이행해 나간다면 무난하겠다. 70년생 긍정적 사고는 능률을 향상 시킨다. 82년생 씩이 자라려면 숙명적으로 인고해야 하리라. 행운의 숫자 : 34, 67
- 47년생 앞뒤 가리지 말고 밀어붙이면 성사되리라. 59년생 안도의 숨은 돌리지만 마음은 불편하다. 71년생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의지를 감춰둬라. 83년생 이성 간에 복잡한 문제가 발생한다. 행운의 숫자 : 95, 98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환영! ☎010-9790-8237

제20회 光日盃 光州·전남 직경비록대회

준결승 2국 8부 (217~246)

黑 조영배 5단 (주택관리사회) 白 정장호 5단 (포스코)

<참고도>

백의 승리 굳히기

결과 흑 217로 이어 지리한 패싸움이 끝이 났는데 이것으로 사실상 백의 승리가 확정되었다. 패싸움을 하는 와중에서 좌상귀에서 손해를 본데다가 상변마저 백 220으로 크게 뚫려서는 팽팽하던 균형추가 완전히 무너져버린 것이다.

사실 220로 팽감을 쓴 수로는 좌상귀 222의 곳에 막아 흑을 잡으러 가는 수가 더 큰 곳이다. 그러나 조영배 5단은 이미 백의 승리가 확정적이라고 보고 만일을 우려하여 보다 확실하게 눈에 보이는 곳을 차지하며 승리를 굳힌 것이다.

흑 221은 백이 222에 저르는 순간 뒷살이 있기 때문에 이곳을 꼬부리는 수가 정수며 좌하귀는 백 228 다음 흑이 '참고도'의 1로 막으면 5가지 살 수는 있다.

그러나 어차피 좌상귀가 뒷살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역전은 없었다. 정장호 5단은 몇수 더 뒤보고 나서 마음을 정한 다음 깨끗이 돌을 던지고 만다.

/오규철 9단 <본보 바둑해설위원>

굿모닝 잉글리쉬

Has he proposed to you yet?
그 사람이 이미 청혼을 했었나?

A : How long have you known each other?
B : We've known each other since we were kids.
A : Has he proposed to you yet?
B : Yes. In fact, we're engaged.

A : 서로 알고 지낸지가 얼마나 되었나?
B : 어린 시절부터 서로 알고 지냈습니다.
A : 그 사람이 이미 청혼을 했었나?
B : 네, 사실, 저희는 약혼을 했거든요.

* engage : 약혼시키다 (to)
* be engaged = 약혼하다
* 그들은 10일 전에 약혼을 했다.
= They got engaged ten days ago.

<동아 외국어학원>
www.donga.tv ☎ 222-6253

한자이야기

乾坤一擲(건곤일척)
하늘미를 건, 땅 곧, 한 일, 던질 척

건곤일척(乾坤一擲)은 '하늘이나 땅이나?' 주사위를 던져 승패를 건다는 뜻으로, 운명을 걸고 단판결로 승부를 겨루는 이르는 말이다.

당나라의 대문장가인 한유가 허난 성에 있는 홍구를 지나다가 젊은 '과홍구(過鴻溝)'라는 시에 나오는 구절이다. 홍구는 초(楚)나라의 항우(項羽)와 한(漢)나라의 유방(劉邦)이 세력 다툼을 하다가 이곳을 경계로 동쪽은 초나라가, 서쪽은 한나라가 차지하기로 한 곳이었다. 이때 장량(張良)과 진평(陳平)이 유방에게 말하기를 "우리 한나라는 천하를 차지하고 제후들도 따르고 있으나, 초나라는 군사들이 몹시 지쳐 있는 데다 식량마저 떨어진 상태입니다. 이것은 하늘이 초나라를 말하려 하는 뜻이니 당장 쳐부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호랑이를 길러 후환을 남기는 것과 같습니다."라고 말하였다. 이 말을 들은 유방은 굳게 마음을 먹고 항우를 쫓았다. 그리하여 마침내, 유방은 초나라의 군사를 포위하고 천하를 통일하였다. 훗날 한유는 이때의 싸움을 두고 운명을 건 승부라 하여 시를 쓴 것이다.

[출전] 한유(韓愈)의 시 <과홍구(過鴻溝)>

<대능교육>
www.daeneungedu.com ☎ 02-2634-2007

니하오 쑹구위

踢皮球 tīpíqiú
상대에게 공 떠넘기기

足球(축구)에 '踢(차다)'라는 동사를 붙이면 '축구하다(踢足球)'라는 의미이고, 踢皮球는 '가족(皮) 공(球)을 차다(踢)'라는 말입니다. 구간 경계지역에서 일어난 사고에 서로 관할이 아니라고 넘겼던 경우.

踢皮球는 자기 일임에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는 경우, 특히 행정부문에서 부서 간 업무분담이 모호하거나 책임소계가 불명확하여 서로 떠넘길 때 많이 쓰이는 표현입니다.

<리틀차이나 중국어 전문학원>
www.littlechina.co.kr ☎ 233-9582

오하오우 니혼고

朝早く運動するのは気持ちが良いです。
아침 일찍 운동을 하면 기분이 좋습니다

A : 山田さんは何か運動をしていますか。
B : はい、この頃朝早くマラソンを始めました。
A : 私も運動したいですが、朝はどうも起きられません。
B : 朝運動するのは気持ちもいいし、体にもいいです。

A : 야마다 씨는 뭔가 운동을 하고 있습니까?
B : 예, 요즘 아침 일찍 마라톤을 시작했습니다.
A : 나도 운동을 하고 싶습니다만, 아침은 도저히 못 일어납니다.
B : 아침에 운동하는 것은 기분도 좋고, 몸에도 좋아요.

<아스카 일본어 전문학원>
http://www.kjasuka.co.kr ☎ 232-1503